

삼성증권 NDR (2025.08) FAQs

Q1. 2Q25 실적 부진 원인

- A1. - 역대 최저 수준의 방영회차(41회차), 대작 잔여 상각비 부담 등으로 손실 발생
- 단, 대작 오리지널 〈다 이루어질지니〉 일부 회차 납품으로 안정적 판매 매출 확보 노력
 - 〈미지의 서울〉, 〈내남결: 일본판〉 등 흥행 회복을 기점으로 하반기 기대작의 개별 성과 확대 기대

Q2. 3Q25 및 하반기 주요 라인업

- A2. - 3Q25 방영회차는 전분기 대비 약 2배로 확대될 전망
- TV: 〈견우와 선녀〉, 〈폭군의 셰프〉 등 / 오리지널: 〈다 이루어질지니〉, 〈친애하는 X〉, 〈조각도시〉 등
 - 2025년 연간 라인업 중 60% 이상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으며, S/A급 크리에이터 및 배우 참여작 공개로 Hit-Ratio 및 경쟁력 강화 기대
 - 수목 드라마 재개, 일본 현지 작품 영역 확장, 대작 오리지널 공급 등 통해 실적 개선 증명할 것

Q3. 일본 등 글로벌 작품 진행 현황

- A3. - 6월, 당사의 Mega-Hit IP 〈내 남편과 결혼해줘〉 일본판을 리메이크하여 Amazon Prime Video 오리지널로 공개 → Amazon 오리지널 전체 작품 중 일본 내 시청 성과 1위 기록
- 하반기 TBS 〈하츠코이 도그즈〉, Netflix Japan 〈소울 메이트〉 등 일본 다변화 전략 통해 확장할 것
 - 미국은 Skydance 등 파트너사와 공동 기획개발 중. 하반기 2편 시리즈 오더로 '26년 실적 기여 목표
 - 미드 평균 제작비는 핸드 대비 3~5배 수준으로 포텐셜 高 → 외형 성장 및 이익 기여 잠재력 보유

Q4. 중국 사업 재개 기대감

- A4. -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으나, APEC 전후 완화 시그널에 주목하여 적극 대응 예정
- 중국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 중
 - 한한령 해제 시, ① 미방영 구작의 잔여 매출 인식, ② 보유 구작 판매, ③ 신작 동시방영, ④ 현지 직접 제작 등 추가 수익성 확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

Q5. 파트너별 리콥울 수준

A5. - 채널 및 OTT별 구체적 리콥울은 공개 불가

- 단, 선판매 플랫폼 다각화, Non-Captive 채널 확대 등 통해 단일 매출 의존도를 완화하고, 개별 작품 성과 극대화로 협상력 제고 추진할 것

Q6. 수목 중심 신인 배우 발굴 등 사업 진행 현황

A6. - 하반기 <우주를 즐게> 편성을 기점으로 수목 드라마 재개, 신인 배우 발굴 사업 본격화

- 배우 출연료 상승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며, 차세대 배우 육성 병행할 것
- CJ ENM과 협업해 커머스 등 IP 부가사업과의 시너지 확대 예정

Q7. 신규 부가사업 방향

A7. - 현재 부가사업 매출 비중 약 5% 수준이나, 드라마 IP 사업 영역 확대로 신성장 동력 추가 확보 예정

- 프리미엄 스토리텔러로서 정체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숏폼 등의 사업 영역도 신중히 검토 중
- AI 등 신규 수익원 발굴도 병행 중이며, 구체적 내용은 단계별로 공유 예정

Q8. 제작 효율화 전략

A8. - 제작비 DB 기반 가이드라인 마련, 입찰 프로세스 도입, 실비 정산 확대 등 통해 제작비 절감 중

- '24년 8개 작품 → '25년 대부분 작품으로 확대 → '26년 전체 라인업 적용하여 수익성 개선 목표
- 단계적 확대 및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수익성 개선 가시화

Q9. 중장기 타겟 영업이익률

A9. - 미디어 산업 전반의 부진과 일부 콘텐츠의 흥행 성과 약화로 수익성 하락 경험

- 그림에도 <눈물의 여왕>, <내 남편과 결혼해줘>, <정년이> 등 화제성 높았던 작품은 고 수익률 기록
- Hit-ratio 개선, 해외 판매 확대, 제작 효율화 등 통해 중단기 영업이익률 10% 수준 회복 목표
- 장기적으로는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 통해 장기적으로 20% 내외 이익률 지향

Q10. 주주환원정책

A10. - FCF, 영업이익률, CAPEX 등 주요 지표 타겟 달성 시 주주환원 정책 검토 예정

- 현재 FCF와 CAPEX는 안정적이나, 미디어 업황 부진으로 영업이익률 타겟 미달
- '25년 펀더멘탈 재구축과 신사업 성과 확보를 통해 주주환원 기반 마련에 집중할 것